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방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7호  
서기 2000년 12월 6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둘 아니게 보는 사람은 누구도 손 못대

오늘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 늘만 한자리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급하면 풀도 되고 쇠도 되고 열도 되고 스물도 되고 백도 되고 하면서, 그 백이 하나로 이릅니다. 그것을 똑바로 아셔야만이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걸림이 없고 급하게 문제가 생길 듯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스님네들이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집안에 일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고 또 선조들도 그렇고 영령들도 그렇고 타의 영령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소관을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영령들도 산사람 잘못 생각하듯이 잘못 생각하면 남의 집을 망쳐놓고 남의 회사를 망쳐놓는 수가 많거든요. 산 사람속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걸림 산 사람이 그냥 다니며 한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다른 분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관하라 관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색색가지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리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색색가지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 안되겠는데...' 하고 생각이 되고 어떤 때는 같이 잡히고 안될 징조가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모르는 이치를 알게 하는 거고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보면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알고 먹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치가 있듯이, 부처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도 행을 그대로 해 나가면 보살이요, 부처님 마음의 보살이니까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 관하면 걸림없이 살아

그러나 그분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가정이 편안치 않으면 사람이 기가 뛰고 혈관이 막힙니다. 잘 생각해서 편히 살고 아무 일이 없어야 편하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하지 않게 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해체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구석구석 알지 못해서 딱딱하면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하면 무슨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여유없이 걸림없이 해결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써야 합니다. 우리가 겁 하나를 누구에게 줬으면 겁이 꼭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불쌍한 사람을 줬는데 그 돈이 어느 틈으로 길을 찾아서 자기한테 다시 그 돈의 몇 배가 오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고 못 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니까요. 마음뿐이 아니라 몸까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하다고 하면 진짜로 믿고 관했다. 큰일이 날 일인데 주인공에 관하면 풀까 하는 믿지 못하는 생각도 없이 급하니깐 그냥 관한다 말입니다. 관할 때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즉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즉시 해

체할 분들이 나서서 여자가 가야만 될 일이라면 여자로 화해서 가지고 남자가 가야 된다 하면은 남자로 화하시고 노인네로 가야 된다 하면은 노인네로 화하시고 또 불에 광인이 있다 이렇다면은 용신이 돼서 거기 끼여서 가지고 지신도 끼여서 가지고 풍신도 끼여서 가십니다.

여러 가지가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주 복잡하지 않고 그냥 놀이 가듯 가서 착착 그냥 하시면서 생각을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에 관하면, 여기서 더 말을 하게 되면은 햇갈릴까봐 지금 내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가시나, 보이지 않게 속지법으로 가시나, 보이지 않게 정신계에서 가시나 하지 마시고, 진짜로 믿고 경정을 지었으면 떨어지지마자 벌써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승이 문밖이라 한 발자국입니다. 한 발자국, 해결의 정책이 완벽하게 섰다 하면은 벌써 그것도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해결하시는 문제까지 삼체를 같이 볼 때에 삼초가 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하다가 보면은 그 일은 해결을 못하고 망쳐버리는 거죠.

누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을 제기 합니다.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없고 대신 아파주는 사람도 없고 죽여주는 사람도 없고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변소에 가주는 사람도 없고 잠을 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걷는 것입니다. 이걸 절실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더러 엉뚱더러 인연 따라 만나서 한 식구라고 살다가 보면은 못할 날도 한두번은 할 말도 할 말대로 못하고 또 할말이라도 좀 안될 일이 있으면은 하지 못하고 누구인가 다 지식한테도 할 말 다 못하고 부모한테도 다 못하고 부부한테도 다 못하고 이렇게 엉뚱더러 살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신 아닌 신 한쪽 남기고 그냥 다 없어집니다.

달마 대사가 왜 주장자에 신 한쪽을 걸어 놔느냐. 신이라는 것은 방편이지 만은 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요다음에 또 다시 태어날 때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신계에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불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 주장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끈기에, 그 주장자가 어떠한 일로 쓰였는지도 또 뭐를 했는지, 누구를 봤는지, 해결을 했는지, 또는 딴 사람한테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 이유가 다 걸림 없이 써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태어납니다. 정신계에 불성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항상 공식으로 하는 문제를 공으로 얘기합니다. 공을 던지면 공은 튀어오게 돼 있다고요.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공은 튀어오게 돼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둘이 아니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는 그냥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생시에는 몰랐다가 죽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때버리는 사람, 즉 말하자면 갈라놓는 사람이라면 싸움이 되고 잘못했으면 걸리고 문제가 되지만 한데 합쳐놓는 사람 앞에는 누구도 손 못댑니다. 그거는 조상들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렇고 영령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들을 볼 때 남의 지식 내 지식 따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머니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때 어머니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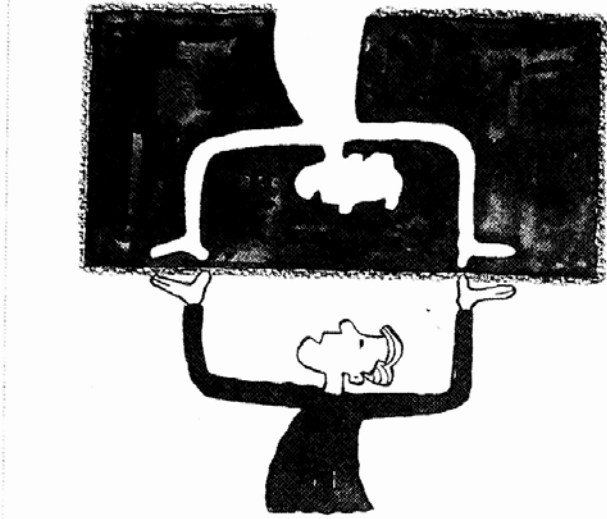


그림: 최주현

## 나로 인해 생긴 문제 남탓 말고 모든 걸 자기 주인공에 놓으세요

지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부모들도 똑같고 자식들도 똑같아요. 네 지식 내 지식이 따로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그렇게 많이 계시어도 실천을 하는 분이 몇 분 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실천은 하려고 무척 애쓰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한 두 분이 아니겠지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만 아는 줄 알지 마세요. 하다가 못해 달음에 내려가면 나무도 '우리집 보살님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지'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석신이 되시고, 어느 거 하나 생명 없는 게 없고 움직여 리지 않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보살이 시아버지가 나라 일 때문에 죽게 됐는데 어떻게 건질 수가 없더랍니다.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묻혀 있는 돌 있죠. 돌을 서너 개 생각을 하고 화하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생각을 하니 화해지는 거죠. 화해서 사람이 보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보는데 들어가서 문을 열고 건져내 왔더랍니다. 그리고 문은 그대로 잠금 채웠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나중에 그 일이 행명이 돼서 숨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 살렸답니다. 그런 머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헤어지고 하지만 그걸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좀 다 만 열마라도 있을 때 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든가 다니면서 부모가 없어서 얻어먹는 애들에게 돈을 주고 지켜보니까 돈을 가져다 훔치고 난 뒤에 저녁 한끼니 우동 한 그릇 사 먹입니다. 왕초가 있더군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취해서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해서 저절로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람노릇을 하고 살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탁 떨어져 취하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고 언제 쓸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못 줍니다. 절대 못 줍니다. 돈 쓸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다 없애주세요. 지금 이 일이 더 급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건 남의 일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급하니까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비었으니까 그 이튿날 저녁에 쓸 돈이 또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믿지 않을런지 모르시겠지만 자불이 알고 있으니까 다 갖다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알 쓰지 않는, 돈 때문에 알 쓰지 않는 사람이 갖다 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급한 자식들하고 죽었다는 사람이 생기면 그걸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 가리지 말고 합쳐라

우리는 여러분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는 다 받지만 주는 거는 몰래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몰래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많죠. 내가 만약에 가난해서 그 돈을 좀 받아 가는데 그걸 전부 알려 놓으면은 미안해서 어떻게 또 밥을 탐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든 못하든 마음은 좀 더 넓고 둥글게 쓰시라 이겁니다. 마음을 둥글게 쓰시면 자식들에게도 내려가고 그냥 대대로 물결 흘러서 내려가듯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 받아라 안 받아라 이걸 떠나서 그냥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새겨서 더 크게 만들고 더 깊게도 만들고 둥글게도 만들고 아주 단단하게도 만들고 푸석하게도 만들고 다 씹음에 걸림없이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대대손손 아마 걸림없이 잘 사시게 될 겁니다. 죽어서 눈감지 못하거나 자식을 때문에 눈 감지 못하거나 죽어서도 피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점은 없을 겁니다.

질문1: 관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섯가지 감관으로 인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원래의 맑은 마음에 귀의하고 그 문제의 본질 즉 진실을 알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관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나가다보면 마음은 편안함인데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고, 생각은 나는데 행은 따르지 않고, 또 작은 것은 돼도 큰 것은 안되는 그런 쪼개기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모두 녹이고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여섯가지라고 해서 몸 하나를 놓고 가지수를 따진다면,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할나할나 하는 일들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몸 속에서 고치는 거지 바깥에서 고치는 게 아니야. 바깥에서는 좀 근력을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게 먹는 음식을 대주는 거지. 그 병에 그 음식이 필요하니 그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맞게끔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난만 드고 살았으면 그냥 출창 사는 줄 알고 그러다 죽으면 고생을 하다 죽었다고 이러거든. 고생을 하다가 죽은 것을 알면은 고생을 할 때에 고생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여섯가지 줄 숫자로만 알려고 하면 벌써 그건 겁데기만 풀려버리는 소리지, 그건 아무 것도 모르는 현상이야. 단 한 발짝을 떼어놓더라도 떼어놓아 발자국이.

질문2: 일체 모든 것은 나로부터였고 모든 현상은 제 탓이었습니다. 제 발로 갔고 제 손으로 찍었고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나가고 나니 드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면서도 일순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겐 상처도 주었고 또 제 자신도 많이 힘들었고 고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된것은 너무 뜻밖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부동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타의 돈과 저의 일부의 돈 몇 억을 걸거리에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제가 잘못된 일이라면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틀어켜 보던대 법적으로든 할 수 없고, 그렇게 엄밀하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가 한 거였기 때문에 누굴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 크신 한마음 내 주십시오.

스님: 그런데 그렇게 참회를 하고 살고 이해가 되고 그러다면 조그만 거와 큰 거와 바뀌놓으면 되잖아. 한 번 생각해 봐요. 바뀌놓고 보면은 바꾸기 전에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동원되었지, 바뀌기만은 몇 푼 안 들어가고 찾을 수 있었어요.

하러온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량은 바로 본인이 얘기했듯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각자 모두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을 남의 탓을 해서 되냐?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도록 해요.

질문3: 저는 힘들 때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스님들께 길도 많이 묻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보니 백일기도 회향에 더불어 모든 것을 제자리잡아갔습니다. 제가 이 선원에 온지 얼마 안되는 초심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경계를 겪었을 때 지금

하게 관음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과 지금 내면으로 주인공을 관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부디 하근기의 중생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중생으로 하여금 주인공 자리를 잡고 마음공부를 끈기있게 끝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맨 끄트머리에 공생인 거를 알게 돼. 공생인 것도 알게 되고 공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람뿐이 아니라, 전부 알게 돼. 공생이라는 거를 전부 알게 되고요. 내가 움직여주니까 내가 움직여주려고 내가 움직여주려는 게 있으면 내가 너를 주고, 이렇게 서로 서로 살고 있다는 사실. 전부 공용으로 살게 되고 공생으로서 사는데 일체 방법을 내가 여찌 걸고 내는 거를 알았으니까 하는 이치나 같애. 그래 일체 방법을 들이고 내도 조금도 걸림없이 들이고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찾았는데 관세음보살 다르고 주인공 다르나 이거죠? 그런데 지장하고도 들이 아니고 관세음하고도 들이 아니고 용신하고도 들이 아니고 허공신하고도 들이 아니고 지신하고도 들이 아니고 석신하고도 들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 하면 들이 아니야. 그래서 모두가 공체고 공심이라는 겁니다.

### 마음 넓고 둥글게 쓰라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자불, 자성불을 불렀다. 자성불이 있으니까 관세음이라는 이름도 알았지 내가 없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나로 해서 이 세상이 다 벌어진 거고 다 일게된 거고 또 아는 도중에도 이름이 많다 하더라도 일불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이름은 수없이 많으나 그 때따로 또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부분이 따로따로 돼 있다. 부덕일 따로 있고 마루 출처는 거 따로 있고 방 출처는 거 따로 있듯이 말입니다. 따로 있기는 하나 치우는 것은 한 사람이 다 치우듯이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은 부처님의 이차적인 이름이야. 반면엔, 그래서 부처님 대리로서 응신으로서 응해주시는 것이 보살의 응신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자성불하고도 들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이 모습하고 들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하죠. 이렇게 되면 정말 도인 되겠네, 허허.

일심히 하시려면 정말 도인 아닌 도인이 되죠. 그럼으로써 편안하게 웃고 살 수 있고 한번 쳐다보고 놓을 한번 할 수도 있고 한번 내려다보고 빗국어 웃고 즐겨워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열로 보나 굴러가고, 모로 보나 모로 가도 굴러가고, 뒤 굴러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고 할나할나 떼어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자기 자체도 그냥 모가 쳐서 있는 아니고 말야. 따지고 보면은 이걸 못 봐서 그렇지 퍼둬퍼둬 할나할나 뛰는 거 같애요.

질문3: 스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부처라는 게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야. 공식(共食)으로서 다 알 수 있어야 진짜 부자지. 열심히 노력하세요.

질문4: 저는 조상님과 주인공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6살 먹은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두 누나들처럼 말도 하고 잘 해줄 것이라 믿고 살았는데 다른 아이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찾았습시다. 요즘에 현대병이라고 할까요? 자폐족이라고 했습니다.

20면으로 계속

가꾸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아주